

일본 도·농 녹색교류 연수기

이 철 학

(본회 회원, 포천 마음발농원 대표)

2002년 2월 3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 도농 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개척자적 사명을 갖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주관한 제1회 도농녹색교류 일본 연수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부산에서 하카다항(후쿠오카항의 다른명칭, 博多)까지 가는 카멜리아호에 승선하여 각자 인사소개와 6박 7일동안의 일정안내를 받았다.

하카다항에 도착하면서 일제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어 전가족을 데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 현해탄을 건너 낯선 일본땅을 밟았던 선조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다.

82세 할머니의 노후생활이 아름답다

2월 4일 오전 9시에 입국수속을 마친 후 이틀동안 안내를 해줄 제일교포 원계숙씨의 안내로 5일간의 전 여행기간동안 타고 다닐 전세버스에 올라 일본연수는 시작되었다.

우끼하정(浮羽町)에 있는 미치노에끼(道の驛)을 둘러보았다. 지역농민을 위해 국도변에, 국도 교통성과 우끼하정이 공동출자하여 농산물도 판매하고 그 지역 홍보도 하며 식사도 할 수 있는 쉼터이다. 동경에서 대학을 나온 30세의 役場직원의 열성이 아름다웠다. 20~30년 후에 농촌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젊은이의 고향사랑 노력을 감동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미치노에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야만돈 관광농원”을 방문하였다. 배, 포도 과수원을 하면서 카페식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조리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부인은 식당을, 32세 남편

은 과수원을 주로 경영한다고 한다. 숙박시설은 없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깔끔하고 아기가기하게 예쁘게 꾸며 놓았다. 생수를 떠 갈수 있도록 지하수를 개발해서 홍보에 이용하고 있었다.

첫날밤을 지낼 이찌노미야(一宮)로 이동하였다. 마을안으로 들어가 14명과 11명으로 나누어 잠을 잤다. 유명 관광지 근처이어서인지 50여호 농가중 11농가가 민숙¹⁾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어느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뒤에 조금 가파른 산을 의지한 평범한 농촌마을이다. 우리 14명의 일행이 간 곳은 20여년동안 민숙을 하고 있는 82세의 야마자도 할머니가 운영하는 집이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의 조카(71세)가 도움을 주고 있었다. 다다미방이 추워 4개의 석유난로를 동원하여 실내온도를 높이고 있었다. 거실벽에 있는 보전소등에서 받은 상장이 여러개 걸려있어 이집의 역사를 말해 주고 있었다.

처음 경험하는 일본 전통의 난로(고다츠)에 둘러앉아 있는데 주인 할머니가 춥지 않느냐고 걱정을 하시면서 일본전통 잠옷과 두꺼운 덧옷을 가져오셨다.

온천에 갔다온후 식사를 하라고 하신다. 75세 할아버지(마을에 사는 노인이 도움을 주고 있었음)가 운전을 하여 마을안에 있는 고령자센터 안의 온천탕으로 안내를 해주어 여독을 풀었다.

온천욕을 한후 두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전통음식을 눈으로, 맛으로 즐겁게 먹었다. 특히 썩을 케어 직접 만드신 요모기모찌맛이 일품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방명록에 주소와 이름을 적고난후 앞장을 들쳐보니 동경, 오사카등 전국 각

1) 민숙(民宿): 우리나라 민박에 해당되며 주로 휴양지에 위치한다. 1박 요금에 두끼분의 식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다미방에 일본식 침대가 놓여있다.



지에서 온 사람들이 적혀 있었다.

하얀천으로 깨끗하게 씌워진 두터운 요와 이불, 베게가 정결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었다. 추위를 온몸으로 느끼며 난생처음으로 민숙경험을 하였다.

추위탓인지 잠이 일찍 깨어 화장실에 갔다. 좁지만 잘 정돈되어 있었고 세면대와 변소는 별실로 되어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양증맞게 작은 휴지통과 함께 소변시에는 대변시보다 물이 조금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차갑지 않게 용변을 볼수있도록 앉을자리가 전기장치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1박2식에 1인당 6,500엔(円)이 아깝지 않게 느껴졌다.

아지무에서 농가민박을 하다

벳푸에서 40km정도 떨어진 아지무(安心院) 役場에서 녹색관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인구 8,500명에 연간 관광객이 200만명 이나 된다고 한다. 녹색관광은 92년 8명의 농가가 연구회를 조직하여 시작되었으며 정(町)녹색관광 추진계가 2001. 3 생겼다고 한다. 회원제²⁾ 농촌민박을 정(町)과 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役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지무, 포도주 공방을 둘러 보았다. 술회사에서 기업홍보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버스에서 내려 5팀으로 나누어, 농가민박³⁾할 주인들의 차를 타고 갔다. 필자를 포함한 포천에서 온 3명과 가평에서 온 장호은씨는 宮川芳郎농가로 갔다. 宮川씨는 아지무정 녹색관광연구모임의 사무국장으로서 아주 화통하고 쾌활한 58세의 전형적인 농부였다. 85세의 어머니, 부인, 19세의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어 연수하러 온 처녀와 함께 살고 있



▲ 이치노미야의 민박농가에서 아침 출발 전 단체사진

었다. 딸과 아들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논 12,000평, 꽃 300평(하우스), 포도 500평, 표고버섯 6,000평 농사를 짓고 있었다. 연간 농업소득은 1,000만엔(円)이고 6년전부터 시작한 농박은 연간 120~130명 정도로 약 50만엔(円) 소득을 올리고 있다. 1박 1식(조식)에 1인당 4,000엔(円)을 받는다.

저녁식사는 宮川씨 가족 4명과 함께 먹었다. 평상시 먹던데다 불고기와 물고기 튀김을 특식으로 준비한 것 같다. 30여년전 주인이 직접 지었다는 별채에서 잠을 잤다. 두터운 요 위에 전기요를 깔고 담요와 두터운 이불까지 덮고 잘 수 있어 어제보다 따뜻하게 농가민박을 하였다.

역시 다다미방에 침구와 베게는 덮개가 깨끗한 흰 천으로 씌워있어 정갈했다.

宮川씨의 도장이 날인된 멤버십카드를 받고 다시한번 찾아와 두 번째 날인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농사체험은 포도따기등 8가지이며 농촌체험은 10~20명 단위로 반경 10km 내에 있는 농가에 가서 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데 비용은 1인당 점심값을 포함해서 2,000엔(円)을 받고 있었다. ☺

(4월회보에 계속)

2) 정과 연구회에서 공동으로 멤버십카드를 만들어 처음 농박을 하면 먼 친척관계로 시작하여 10번 농박을 하면 가까운 친척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3) 농가민박: 우리나라의 민박에 해당되며 주로 일반농촌에서 한다. 보통 1박과 다음날 아침식사를 제공하며 농가에서 농촌체험을 함께 할수 있다.